

## 123 회 여름 대공연 음향팀 인수인계서

안녕하세요. 123 회 여름 대공연 음향팀팀장 63 기 장추이입니다. 대공연은 처음이고 음향팀도 처음이는 상황에서 팀장으로 공연을 참여하게 돼서 매우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이전의 대공연 음향팀 인수인계서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음향 찾는법

대본에 필요하는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이면 그냥 대본에 따라 음향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부분 대본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때는 음향팀 내부에 먼저 대본을 읽어서 음향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분석해서 연출님과 원하는 음향효과를 확인하고 음향을 찾으면 됩니다.

이번 공연에 나온 음향의 특수성으로 거의 다 음향팀 멤버가 직접 만들었지만 보통 유튜브에서 '연극 음향'으로 검색하거나 원하는 배경음악과 효과음 종류를 검색해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 음향 편집

사실 음향 제작과 편집은 제가 맡은 부분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해주기는 좀 어렵지만 전에 대공연 인수인계서에 따라 골드웨이브나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나 오디션을 사용하면 되고 골드웨이브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자세히 나와있고 간단하기 때문에 처음 써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큐시트 작성법

음향이 모두 확정하고 편집 끝나면 대본에 음향이 들어가는 곳에 쓴다. 음향이 들어가는 곳의 앞뒤 대사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힐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의 대공연 인수인계서를 참고하면:

컷 인: 쉽게 말해 음향을 바로 키는 것

컷 아웃: 음향을 바로 끄는 것

딤 인: 천천히 음향볼륨을 올리면서 키는 것

딤 아웃: 천천히 음향볼륨을 내리면서 끄는 것

한편 이번 공연은 반복된 대사를 아주 많아서 음향이 들어가는 곳을 헛갈릴 수 있으니 큐시트보다 그냥 대본을 보면서 오퍼하는 게 더 편리하였습니다.

## 오퍼 맞추기

캐스트 장면 연습을 보면서 음향을 맞추어야 해서 가능하면 주 2회이상 연습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향 확정해도 장면 연습과 맞추어다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오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